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아이성장 토크쇼' 개최

윤영미 아나운서의 사회로 8월 20일 11시 5층 대강당에서 '아이 성장 토크쇼'를 개최했다.

토크쇼는 제 1부에서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가 '우리자녀 키 성장 스페셜 노하우'의 주제로 우리자녀를 위한 키 성장 노하우를 직접 들려주고 아이 성장의 다양한 정보와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지현 교수는 "대부분의 아이가 정상 범위에 든다면서 아이에게 성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주지 말고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아이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 2부에서는 SBS TV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에서 은율이 아빠로 출연하는 개그맨 염경환이 자녀 성장에 관한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담겨있어 청중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나의 사랑, 나의 가족 라이프 스토리'로 토크쇼를 마쳤다.



02 행복한 힐링의 시간 되셨나요!!!

2013년 'Happy Hospital Season6 캠페인' 성황리 마감

2013년 Happy Hospital Season6 캠페인이 내원객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힐링한즈를 마지막으로 8월 23일 마감되었다.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는 힐링'의 주제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7월 시행한 '추억의 게임'에서 어릴적 즐겨한 게임을 가족 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어릴적 느꼈던 행복한 기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아프고 지친 심신을 치유해 주기위해 직원들이 내원객을 위해 시행한 손마사지는 이번 캠페인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힐링한즈에 참가한 환우는 "서울에서 처음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몸과 마음이 더욱 행복해 졌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더욱 다양하고 알찬프로그램을 준비하여 Season7 캠페인으로 2014년에 내원객과 환우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03 입원병동 암환우 대상 미술활동 프로그램 진행

사회사업실에서는 21일 병동 암환우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 활동 프로그램을 열었다. 본 프로그램은 암 치료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에게 안정과 삶을 편안하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술치료를 전공하는 2명의 전문자원 봉사자와 함께 매주 수요일 사회사업실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재료와 미술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어, 앞으로 환우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
소감문 당선작

동국대학교병원에서 찾은 나의 장래희망

능곡고등학교 1학년 박형근 학생

봉사활동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제가 배치 받은 봉사활동 부서는 주로 정형외과 환자들이 입원해 계시는 81병동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중 한 간호사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봉사할 기관들이 많은데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때 저는 '저의 꿈이 외과의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꿈이 외과의사가 된 이유는 드라마 '뉴하트'를 너무 인상 깊게 보아서였습니다. 간호사선생님과 장래희망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서였는지 남은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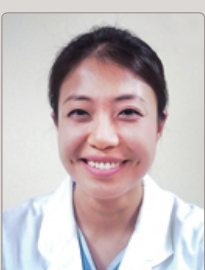
봉사활동 마지막날... 아쉬운 마음을 갖고 병원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에 장래희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간호사 선생님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봉사활동 끝나기 30분전 병동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한 남자 외과의사 선생님을 소개시켜주셨습니다. 저는 남은 30분 동안 그 의사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고 도와드렸습니다. 드라마가 아닌 실제 의사선생님의 치료 모습을 현장에서 본 저는 드라마와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의사선생님은 분명 멋있으셨고 저에게 의사선생님과 함께한 30분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 꿈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81병동 선생님들 모두 일주일간 친절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겨울방학 때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얼굴 잊지 말아주세요.

톡톡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쑥스러워하고 어색해 합니다.

이번 주 인터뷰 대상자는 신입직원 면접 모드로 인터뷰 내내 긴장했다는...

그러나 이 분 별명은 선머슴. 어려서부터 목소리는 걸쭉한 막걸리 목소리, 하지만 양쪽 볼에 속 들어간 보조개가 너무나 예쁜 외과계 중환자실 김미진 간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외과계 중환자실
김 미 진

- **본인 소개?** 78년생 말띠, 08년에 결혼, 현재 아들 둘과 함께 덕이동에 살고 있는 외과계 중환자실 교육책임간호사 김미진입니다.
- **개원시부터 한 부서에만 있었는데 중환자실만의 매력이 있다면?** 중증의 환자들이 정성스런 간호에 점차 쾌유되는 과정을 지켜 보고 있을 때 정말로 보람을 느낍니다.
-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주로 술로 풁니다. 주량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전성기(?) 때를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마시고는 있지만 체력이... ㅎㅎ
- **동국대병원 간호사라면?** 성실을 기본으로 하며 개인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간호사
- **마무리 인사?**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기쁘고 외과계 중환자실이 좀 더 화목하고 팀웍이 넘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과계중환자실 핫팅!!!

알 리 미

부서 미션 타임 콘테스트 일 시 : 2013년 8월 26일 ~ 8월 30일 | 장 소 : 1층 전시장